

8/21/16

설교 제목: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무엘 상 17:41-54

(삼상 17:41)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삼상 17: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절관주** 삼상 16:12

(삼상 17: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삼상 17: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관주** 시 44:6, 대하 20:15

(삼상 17: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삼상 17: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삼상 17: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삼상 17: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절관주** 히 11:34

(삼상 17: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삼상 17: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삼상 17:54)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고 정의가 불의를 이겼다는 점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쾌감을 유발시킵니다.

세상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자인 골리앗이 승리합니다.
실제로 약자인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강자인 골리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는
싸움은 커녕 도전장도 내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키가 270-290(m 쯤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55Kg 무게의 갑옷을
입고 7Kg 이나 되는 창을 들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삼상 17: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삼상 17:9)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삼상 17: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런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비교해서 눈에 띄이게 차이가 나는 자신들의 전력과 골리앗의 거대한 용모에 기가 눌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채 두려워하며 어쩔줄 몰라 했습니다.

마침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가 있던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 보라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서 골리앗이 40 여일을 주야 장장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삼상 17:26)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디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백성,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형들과 사울 왕이 만류했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리자 뽀족한 다른 수가 없었던 사울 왕이 결국은 승락했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하사한 갑옷과 군장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매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가까이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용모도 우락부락 무섭게 생기지 않고 붉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삼상 17: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삼상 17: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하지만 다윗은 당차게 맞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막대기나 매끄러운 돌 다섯 개, 물매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뽑아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다 하여 그들을 쫓아가 노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서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자만하고 방심하면 골리앗과 같이 지극히 약한 자에게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윗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다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 일까요?

물론 본문 속에 이런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고자 했던 것은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윗 또는 골리앗,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맹이 등에 집중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하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얼핏 보면 정답 같기도 하나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로 해석하여 “취업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등등 수많은 골리앗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취한 다섯 개의 돌맹이, 그 중에서도 다윗이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돌맹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잘 것 없는 저도 이 돌맹이 같이 들어 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웃기는 기발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대대로 맺으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속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다른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일반적 역할 이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 장에 나타난 다윗은 아직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16 장에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 받음으로써 왕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하게 이 사건에 개입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택한 자들의 왕, 대표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표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명확히 받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과 언약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